

군산시-공무원노조 단협 최종 합의

후생복지·근로환경 개선 등 109개 조항 양측, 한차례 실무교섭으로 합의점 도출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지난 13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운, 이하 군공노)과 공무원 후생복지·근로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5년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이날 체결식은 노사 양측 교섭대표인 문동신 시장과 김상운 군공노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7월 군공노에서 109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시에 제출한 데 이어, 양측이 예비교섭 및 1차례 실무교섭 진행만으로 전 조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사,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협약에는 조합원 직무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다양화,

선거사무종사자 대체휴무 보장, 사무실 환경개선 등이 새롭게 포함돼 공무원들의 편익 및 권익증진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이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군공노와 군산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운 군공노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공무원 노조로 우뚝 서 어려운 시기에 군산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사된 올해 단체교섭은 시와 노조가 예산 소요사업을 지양하는 등 진정한 군산발전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준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년간이며, 1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직영체제 전환

익산시 내년 1월부터 운영 연간 8300만원 예산 절감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그동안 민간에서 위탁 관리해 온 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위탁운영 중인 제3일반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론 곧 준공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공폐수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와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관련분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10월까지 채용할 예정이

며, 인력이 채용되면 인수가격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는 원인자인 입주기업에서 전체 운영비를 부담하는게 원칙이나 제3산업단지 폐수유입량이 적어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을 시에서 90% 정도 지원하고 있어 시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영운영을 결정했다. 민간위탁기업에 지불했던 이윤, 부가세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만으로도 연간 8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인수하여 직접 통합 운영하면 예산절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정현영 기자

우수 농수특산물, 추석 황금연휴 특수잡기 분주

군산시, 온라인 쇼핑몰서 할인판매 등 명절이벤트 전국 직거래장터 참여 판매·홍보활동 만전



군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마케팅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흰쌀밥, 찹쌀떡, 떡갈미, 조미김, 장류, 장아찌, 딸치 등 군산 대표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전국적인 마케팅 활동에 본격 나선다. 군산시 우수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군산팜(www.gunsanfarm.co.kr)에서는 18일부터 명절선물 할인판매 및 적립금 지급 추석맞이 명절이벤트를 실시하며, 20일부터 26일까지는 시청로비 1층에서 명절선물 전시 행사를 진행하고 현장판매 및 택배 주

문의 받는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자매도시인 김천의 시청 앞 광장에서 군산시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17개 업

이외에도 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하여 군산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활동을 벌인다. 서울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에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장터는 24일부터 27일까지, 28일에는 강남구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수도권 시민들에게 군산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홍보·판매할 예정이며,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시, 전라북도청 앞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추석맞이 군산특산물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군산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함으로써 지역농가 및 가공업체의 소득증대는 물론 군산시 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모범음식점에 도전하세요”

군산시, 신규 신청업소 접수 지정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군산시가 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종사자 등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업소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접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이뤄진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 ▲조리장 및 주변 환경의 위생적 관리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등의 내용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하며,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지정 신청서를 군산시 식품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외식업중앙회 군산시 지부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에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점 등을 비롯한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san.go.kr)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식품위생과(☎ 454-342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명상숲 조성사업 대상학교 모집

군산시는 민선6기 핵심공약사업인 어린이행복도시로서의 친환경적 학습공간 제공과 도심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2018년 명상 숲 조성사업 대상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이며, 신청서는 내달 10일까지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공모 신청한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명상 숲 조성사업 지침'에 따라 대상학교별 사업규모와 사업비 적정성 등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각 분야 전문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사업대상지별 여건에 적합한 숲 유형 등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명상 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의 국비 및 시비 지원사업으로 각 학교별 나대지화 되어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친 자연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녹색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심문태 산림복지과장은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이 균등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희망학교는 필히 신청해 주시고 명상 숲 조성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3개의 학교에 대해 명상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는 인성교육과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 평생교육원 라복임 전담교수 한국예술문화 화훼부문 명인 인증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플라워디자인 과정 라복임 전담교수(사진)가 제 6회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 수여식에서 화훼부문 명인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인증수여식은 서울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되었고, (사)한국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했으며, 명인 아카데미를 통한 엄격한 심사 및 현장실사 과정을 통해 인증 대상자가 최종 결정됐다. 화예명인으로 인증 받은 라복임 전담교수는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문학박사과정을 졸업했고, (사)

한국예술문화협회 회원이며, 한국예술문화협회 화훼협회 회장, 힐링아트연구소 슈퍼바이저, (관인)라복임플로리스트 학원 원장,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플라워디자인 전담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